

# “월초 스님은 근대불교 선구자”

## 봉선사 門祖현양사업 본격화

동국대 역경원장 등을 역임했던 윤허 스님이 젊은 시절 독립운동을 했을 때 이야기다. 어느날 유점사 주지스님이 윤허 스님에게 “자네 할아버지께 되는 홍월초 스님이 손상좌인 자네를 속히 보내라고 하셨네. 어서 행장을 꾸려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로 큰스님을 찾아 뵙도록 하게.”

남양주 봉선사로 떠난 윤허 스님은 일본 형사들의 검문을 받았고, 승려증을 보여도 믿지 않자 월초 스님이 보낸 서찰을 형사들에게 보였다.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글을 쓴 늙은 중은 홍월초라는 중인바 조선총독이 내 수양아들이요. 이 글을 소지하고 있는 중은 바로 내 손자라. 이 아이의 신원은 나 홍월초가 보증하는 바이니 지체 없이 통과시켜 경기도 양주 봉선사로 보내주기 바라오. 만에 하나라도 이 아이를 지체시켜 내가 도모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면 총독에게 알려 줄 터이니 추궁할 것인즉 이 점 각별히 유념토록 하시오.”

월초 스님의 서찰을 읽고 난 형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다른 사람 심문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는 일화다.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형사들에 쫓겨 출가했던 윤허 스님은 월초 스님 친견 후 진심으로 스님이 될

각오를 했다고 전해진다.

일제 강점기 봉선사 주지를 5번이나 역임했을 정도로 근대기 봉선사를 대표하는 월초 스님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스님은 구한말 불교계를 대표하는 남한산성팔도총섭(1892년)과 내산심리(1902년)를 지낸 근대기 불교계의 주역이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주지 인묵은 9월 25일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대불교의 선구자 월초 화상 추모 74주기 기념 학술회의’를 비롯한 봉선사 문조현양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조선총독이 수양아들이라는 서찰 등으로 월초 스님은 친일파로 매도됐다. 명진학교(현 동국대) 등을 설립해 민족불교를 교육사업에 연계했던 근대불교의 선구자 월초 스님을 학술적으로 재평가해 교종분할 봉선사의 위상을 높이겠다.”

봉선사 문조현양사업은 2007년 월초문도회(문장 월운) 결의로 시작됐다. 문조현양사업회는 현양사업의 시작으로 월초 스님 추모 학술회의를 10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학술회의에는 신용철 박사(경희대)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동민 박사(수원시 연구원), 김광식 교수(부천대), 신규탁 교수(연세대), 지환 스님(봉선사 교무국장)이 각각



월초 스님 진영.

발표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봉선사 문조현양사업은 월초 스님이 건립했던 흥법강원 복원과 <수기집> 발간, 교육 및 학술 출판사업 등 다방면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보인 스님(봉선사 총무국장)은

“교종분할 봉선사에는 항일운동과 불교 교육사업, 한글역경사업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월초·윤허 스님 등 큰 스님들이 계셨다. 이분들 행적을 조명하고 뜻을 기려 교종분할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환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 <12> 대륜 대종사

대륜 큰스님은 각황사현 조계사 최초의 원주 겸 포교사로 대종불교와 도시불교를 제창하셨던 선구자다. 조선왕조 500년간의 역불정착에 한이 맺혔다가 도성 안에 집을 짓고 스님들이 자유자재로 출입하게 되니, 스님은 각황사 원주로 있으면서도 평양에 유점사 포교당을 만들어 보륜 스님을 포교사로 파견하셨다.

스님은 원래 강원도 간성 출신이다. 1884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다가 16세에 유점사 괘은 스님께 득도하고 반야암 대원 스님께 사미·사집과를 배우고, 내원암 선방에서 한 철을 난 뒤 만일회 별좌로서 2년 동안 봉사했다.

일제강점기 후 잠시 일본에 다녀온 뒤 조영하 대감의 후의로 금

<불교 일용집> <미타경> <금강경탑다라니> <수구정광다라니> <안락국태자전> <몽수경> 등을 번역하고, 광주 윤주일 선생을 모셔 <유야경> <유마경> <천수천안>을 배경으로 심전개발에 앞장섰다.

1959년에는 33조사상을 영인하여 전국 사찰에 배포하고, 6·



스님께 인사드려라. 저 분이 법륜사 장사스님이시다.”

인사드리고 나서 알고 보니 해인사 주지를 지낸 변설호 스님이었다. 이로 인해 법륜사에 입방하여 두 달 동안 조선불교사를 공부했는데, 하루도 예불에 빠지지 않았다. 스님께서는 새벽예불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침 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법륜사 대종은 18명이었고, 절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40여명이 넘었으며, 통학확인까지 합하면 60명이 넘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중·고등·대학교 학생들이었다. 이미 그 과정을 거쳐 일선 직장에 배치된 선생님들도 계셨으며, 시인·묵객도 몇 사람 끼어있었다.故 김어수 법사님, 김달진 선생님이 거기서 뵈일이 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건이 생

## 일제강점기 방한암 스님만난 뒤 도심포교에 몰두

### ‘보조 종조설’ 맞선 ‘태고 종조설’로 태고종 종정 말아

강경독송회를 만들어 이끌어 왔고, 1919년에는 만공 스님을 만나 대덕 법계를 받았다. 그 후 오대산 훈련원에 가서 방한암 스님을 만난 뒤 도심포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서울 종로 사간동에 석왕사 포교당(불이성 법륜사)을 개설하고 도제양성에 몰두했다.

1924년에는 불교부인회(자은방생회)를 조직하고, 해인사 보담 스님을 모셔 화엄선림을 열고, 포명·고경 스님께서는 <금강경> <법화경>을 강의하게 한 뒤, 황해도 패엽사 구봉 스님을 모셔 <비유경>과 <관음경> <고왕경> 등을 번역 간행했다. 이어 옥천사 서운, 통도사 고경, 해인사 설호 스님 등을 초청해 강원을 개설했다.

1941년에는 여기서 배출된 덕암·남해·옹봉 상좌들에게 포교를 맡기고, 스님께서는 유점사 주지가 되었으나 해방과 더불어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다. 스님은

25등단 때는 부산 금정사·선암사·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안거를 거친 뒤 이북5도 불교연합회 교육원장이 되어 서울로 올라 오셨다.

1955년 법륜사에서 첫 번째 일요법회를 시작하고 동국대학교 이사, 조계종 총무원장이 되었을 때 필자가 기산 스님 심부름으로 법륜사에 들러 뵈게 되었으니, 때는 1959년 10월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름달 같은 용안에 수미산 같은 몸체,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순박하게 보여 부자집 만머느리처럼 풍성함을 느꼈다.

“이사장님(기산 스님) 심부름 왔습니다.”

“어, 자네가 새로 들어온 시봉이나. 그런데 어찌하여 행건을 했느냐?”

“산중에서 살다보니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산중이 아니니 누구 흉내 내지 말고 그 행건 벗고, 큰

것다. 동국대 이종익 박사님 논문이 나오면서 한국불교의 종조가 보조 국사라고 우기자, 태고보우 국사를 중심으로 태고종을 만들어 종정직에 앉게 되었다. 전통 한국불교가 조계·태고 양종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다.

스님께서는 이 사연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반야회를 조직하고, 권상로·김동화·김포광 박사님 등을 초빙해 <선린불교성전>을 편찬하게 하는 한편, 건국대학교 이영무 교수에게 <태고보우 국사 문집>을 번역하게 했다.

이렇게 스님은 97세를 사시는 동안 거의 80년 이상을 불교계에 몸담고 도제양성과 도심포교에 심혈을 기울였다. 매년 정월달이 3일 동안 단식철야정진법회를 가졌고, 각황사 시절에는 1년 365일 파고다공원에 참배하며 종로1가에서 제일가는 불교회관 건립을 서원했다.

## ‘제 8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열린다

### 10월 4~12일 전등사 일원서 전통불교문화 선보여

사찰이 지역문화축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인 삼랑성역사문화축제가 10월 4~12일 9일간 강화 전등사에서 여덟 번째로 열린다.

삼랑성역사문화축제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해경·전등사주지)는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4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되돌아보는 천년, 전등사역대조사야도 화상부터 노은 스님까지’ 다례제’를 첫 행사로 9일간의 축제를 시작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호

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재(중요무형문화재 50호)를 봉행한다.

5일(일) 오후 1시에는 ‘천년의 몸짓 그리고 소리, 국악한마당’을 통해 중앙대 국악과 전수자들과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 이수자의 춤과 노래로 우리 전통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11일(토) 오후 12시부터는 ‘강화군립합창단 공연’이, 오후 2시부터는 민족예술단 우금치의 ‘할머니가 들려주는 신화이야기-칠성신과 당금매기’라는 마당극이 펼쳐져 온 가

족이 즐길 수 있다. 또 저녁 6시에는 ‘화합과 상생의 천년 추억을 찾아가는 추억여행, 전등사 가을음악회’가 열린다.

축제기간 중에는 다양한 전시회도 열린다.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각자 전수 동문전’과 ‘정족산 삼랑성 회화전’, ‘생태사진전’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또한 15일부터 22일까지는 정족산 사교, 인천 신세계 갤러리, 서울대 전시장에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부평역사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특히 영화배우 손태영씨가 난치병어린이 돕기 자선바자회에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해 나눔을 실천하는 훈훈한 행사도 열린다. 이 밖에도 화문석공예, 짚공예, 도자기 물레, 칠보공예, 단청 등 각종 체험 행사와 먹거리 장터, 지역 특산물 장터가 열려 볼거리와 즐길 것이 풍부하다.

전등사 주지 해경 스님은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 상생과 소통, 화합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번 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참선에 뜻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 3박4일 대용맹정진



3박4일 간의 주야 용맹 참선 정진 대법회에 전국 사부대중과 참선에 뜻이 있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시어, 참나를 발견하여 밝은 지혜를 갖추므로써, 모든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대안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 3박4일 대용맹정진

- 입재 : 10월 13일(음9.15) 오전 10시
- 회향 : 10월 16일(음9.18) 오전 11시 (회향 직후 재가오계수계식 봉행)
- 동참금 : 4만원 (스님은 무료)

### 재가오계수계식

- 증명 및 계사 : 지혜대종사, 진제대선사
- 일시 : 10월 16일(음9.18) 오전 11시
- 동참금 : 1만원 (불명 신청받습니다.)

※ 행사준비 관계로 참가하실 분은 미리 접수바랍니다.

##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정사 주지 지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해운대역 뒤편 5분 거리)  
문의전화 051)746-2256,4812  
팩 스 051)741-8882  
홈페이지 http://www.seon.or.kr